



주권기

광주시청서 가을버스킹 즐기세요

14일부터 잔디광장서
내달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팝·트로트... 다양한 음악 공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날 수 있는 ‘2017 음빛고을거리’가 오는 14일 오후 2시~5시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나눔광장 일원에서 진행됐던 공연이 이번에는 광주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아시아문화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추억의 가을버스킹’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월1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만날 수 있다.

공연에는 율드팝, 트로트, 최신가요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가수 주권기가 등장한다. 광주세계김치축제,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 등 다양한 축제에 참여해 노래하는 통기타 가수 주권기

는 ‘너에게 보낸다’, ‘나는 돈키호테’ 등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름과 달리 오래도록 감동을 이어갈 음악을 선보이는 3인조 인디밴드 ‘오래못갈밴드’의 무대도 펼쳐진다.

지난해 광주 북 FM음악라디오 ‘광주에 헤라인디아’의 메인 DJ로 활동하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봄봄봄 공연에도 참여한 오래못갈밴드는 지난해 디지털 싱글앨범 ‘오래못갈밴드-멍~’을 발표했다.

오래못갈밴드는 이번 공연에서 자신들의 곡인 ‘possibility’, ‘나는 내가 밝혀준 하나의 밤’ 외에도 양희은의 ‘가을아침’, 조용필의 ‘단발머리’,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재즈보컬리스트 장소영의 무대도 이어진다. 전남과학대학교 실용 음악과와 남부대학교 보컬 외래교수를 맡고 있는 장소영은 광주가요제에서 금상을,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봄봄봄’ 밴드경연에서 대상

을 수상했다. 한·일 교류콘서트에도 참여한 그는 이번 공연에서 ‘Autumn Leaves’, ‘Quizas Quizas Quizas’, ‘춘천 가는 기차’, ‘외로운 사람들’ 등의 무대를 준비했다.

카페와 길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며 활동하는 2인조 공연팀 ‘더블클립’도 무대에 오른다. 신현희와 김루트의 ‘오빠야’,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황지열의 ‘매일 듣는 노래’, 크러쉬의 ‘SOFA’, 에스나의 ‘A little lovein’ 등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어쿠스틱 포크 트리오 ‘노래발자국’은 ‘바람’, ‘가을사랑’, ‘숨어 우는 바람소리’ 등 무대를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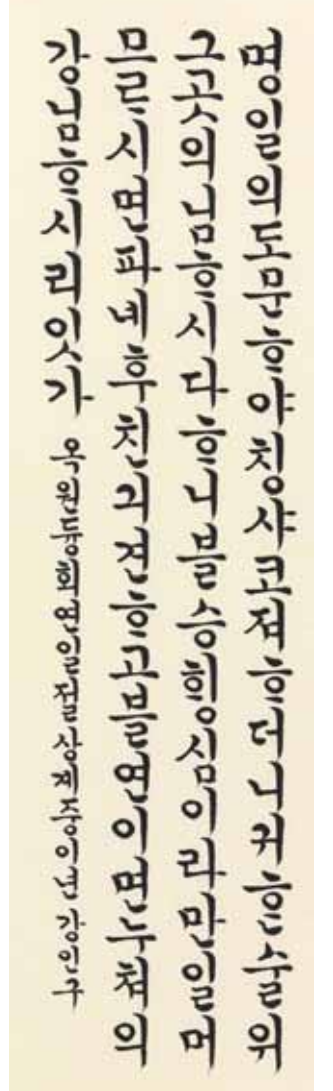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도 다양한 공연을 준비했다. 광주 프린지페스티벌과 제13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 등에서 공연을 해 온 그는 이번 무대를 통해 전자 바이올린의 매력과 음색을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강명진

세계청소년서예대전
수상작 전시회
18일까지 메트로갤러리



중등부 대상 작품

국내 대표 서예가인 학정 이돈홍 선생은 오랫동안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서예 대회를 열어왔다. 특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외국 거주 학생으로 대상을 확정해 서예 꿈나무 양성에 힘써왔다.

제36회 세계 청소년서예대전 수상작 전시회가 12일부터 18일까지 광주 지하철 급남로 4가역 광주 메트로 갤러리에서 열린다.

(사)학정연우서회(이사장 이돈홍, 회장 유백준)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 489점, 중국 628점, 일본 269점 등 모두 1389점이 출품됐다. 지난해에 비해 200여점 늘어난 것으로 특히 해외 출품작이 급증했다.

1·2차 심사에는 이형철, 최은철, 구자송, 김장호씨 등 10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중국 등 해외 참가자들의 실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시회에서는 초·중·고 대상 수상작을 비롯해 특선 이상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시상식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열리며 식전 행사로 서예 퍼포먼스와 수상자 휘호 행사를 갖는다. 문의 062-222-4155. /김미은기자 mekim@

문화정보원 아시아 음악·영화 자료 둘러보고 지상까지 탁 트인 지하 대나무정원에서 차 한잔

‘가을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차 한잔의 여유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은 규모가 방대한 한눈에 살펴보기가 어렵다. 이럴 때 해설사와 함께 전당을 둘러보는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다양한 공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전당은 매일 4차례(오전 10시30분, 오후 1시·2시30분·4시) 정기 투어를, 계절별로 ‘특별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수요일 오후, 전당이 가을 시즌을 맞아 준비한 ‘ACC 낭만 투어’(수·토요일 오후 5시30분)에 참여했다. 전당 내 대나무 정원에서 맛있게 마실 수 있는 티 타임이 포함된 투어다.

낭만투어는 전당 방문자 센터에서 ‘티켓’ 역할을 하는 맛있게 쿠폰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오늘 길러잡이로 나선 김범서 해설사와 함께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전당 앞 민주광장 분수대. 이 곳에서 옛 전남도청의 모습 등 전당 건물 전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계단을 통해 광장으로 내려갔다.

대부분의 공간이 지하에 들어선 전당에서 눈에 띄는 건 꽃과 나무다. 76종 5만 6000그루 56만본의 꽃과 나무가 전당을 장식하고 있다. 건물 위를 감싸고 있는 건 7000여 그루의 대나무다.

전당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받고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어린이문화원’. 극장, 놀이 시설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ACC 낭만투어’ 참여해보니

민주광장 건물 설명후 출발
내외부 다양한 작품도 흥미
10월까지 수·토 무료 참여



투어 마친 후 받은 ‘낭만투어’ 선물 세트.

공간 구성이 눈에 띄며 아시아 각국의 책을 모아둔 어린이 도서관도 흥미롭다.

이어 아시아문화정보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뮤지엄의 기능을 겸하는 문화정보원은 아시아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 망라된 ‘지식의 보고’다. 대중음악, 영화 등 13개 섹션 중 관심 분야를 천천히 둘러보면 좋을 것 같다. 특히 희귀한 자료들을 따로 만날 수 있는 ‘특별 열람실’ 공간이 흥미롭다.

이어 해설사와 함께 들른 곳은 정보원

대나무 정원. 지상까지 탁 트인 높은 천정과 수많은 대나무가 인상적인 작은 정원이다. 쿠폰을 내고 맛있게 차를 받아온 참가자들은 알록달록 방석 위에 자유롭게 앉아 편안한 마음으로 차를 음미하며 휴식을 취했다. 투어 참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으로 대나무 정원은 문화정보원 뿐 아니라 창조원 등 건물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건물 내외부 공간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건 또 다른 재미다. 360도 회전하는 배스우 작가의 ‘세븐 데이즈’, 왕두의 ‘승리’ 등이 눈에 띄며 특히 아시아문화광장에 놓인 휴식용 의자는 파비오 노베레 등 세계적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작품’이다.

예술극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만난 대형 ‘미디어 월’은 75m×17m 규모로 수많은 LED가 어우러져 다양한 영상들을 쏟아냈다. 또 타공판과 유리로 이뤄진 건물 외관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기존 공연장과 전혀 다른 형태로 이뤄진 예술극장을 소개받고 나면 1시간여의 투어가 끝난다. 방문자 센터로 돌아와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지역 작가가 디자인 한 낭만 노트, 컬러링 엽서, 색연필 세트를 선물로 받았다.

사실, 한 시간의 투어로 전당을 제대로 알기는 어렵다. 이번 투어는 ‘큰 그림’을 그린 후 흥미로운 공간을 다시 찾아가게 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전당을 좀



10월말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진행되는 ‘ACC 낭만투어’ 중 대나무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설명을 듣는 참가자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더 ‘제대로’ 즐기려면 전당에서 열리는 많은 전시와 공연, 강연 등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다.

투어에 참여한 김다현(26)씨는 “가끔 전당에 오는데 평소에는 뭐가 있는 지 잘 몰라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 같다”며 “오늘 ‘발견’한 특별 열람실을 꼭 다시 찾고 싶다”고 말했다.

김범서 해설사는 “도청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전당 건물 자체에 대한 관심도 많고 무엇보다 차 한 잔 마시며 여유를 갖는 대나무 정원을 참가자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말했다.

봄에는 ‘나들이 투어’, 여름에는 ‘달빛투어’를 진행했던 전당은 겨울(11월·12월)에는 ‘ACC 백스테이지 투어’를 진행한다. 모든 투어 참가자는 무료로 진행하며 홈페이지 ACC 투어 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가을여기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1인 + 사우나1인 (조식1인 추가시, ₩15,000)